

고령일수록 보행능력 중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수술 결정

건강 바로 알기 고령 환자의 척추·관절 수술

김종선
첨단우리병원 원장

건강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척추나 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척추 및 관절 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두려움과 거부감이 크다. 그렇다면 척추·관절 수술은 어떤 환자에게 필요하며, 수술 전·후 고려사항과 수술 수 관리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늙을수록 걷는 게 원칙=교과서의 65세 이상이 고령이란 말은 이제 맞지 않는 말이 되었다. 75세까지는 대부분 건강한 중년이다.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의료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고령 환자를 위한 최소 침습 수술, 전신 마취 대신 부분 마취, 전문 시설 등으로 안전한 수술을 추구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 논문 내용이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받지 않는 환자보다 오래 산다더라. 척추 수술로 인해 보행능력의 향상 및 생활의 질 향상이 장수의 비결이다.

척추나 관절 수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령일수록 걸어야 한다. 보행기나 유모차를 끌고라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걸어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야 개인위생 문제가 적어진다. 걷지 못하면 장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는데, 이로 발생하는 욕창으로 인한 감염 문제가 크다. 걸어야 다리 등의 혈액 순환이 원활한데, 제대로 걷지 못하면 혈관에 피떡(혈전)이 생겨서 심각한 심장, 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사량·수면시간·상체회복력 등 환자 건강상태 꼼꼼히 확인
최소 침습·부분 마취·전문 시설로 고령 환자 안전한 수술·재활 치료

◇고령 수술시 환자와 가족의 고려 사항=꼭 해야 하는 수술이라도 선택은 분명 환자와 가족의 몫이다. 고령에서 수술 여부 선택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살펴보자.

수술하기 전에 피 검사,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전신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비교적 철저하게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하지만 검사만으로 알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있다.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건강 상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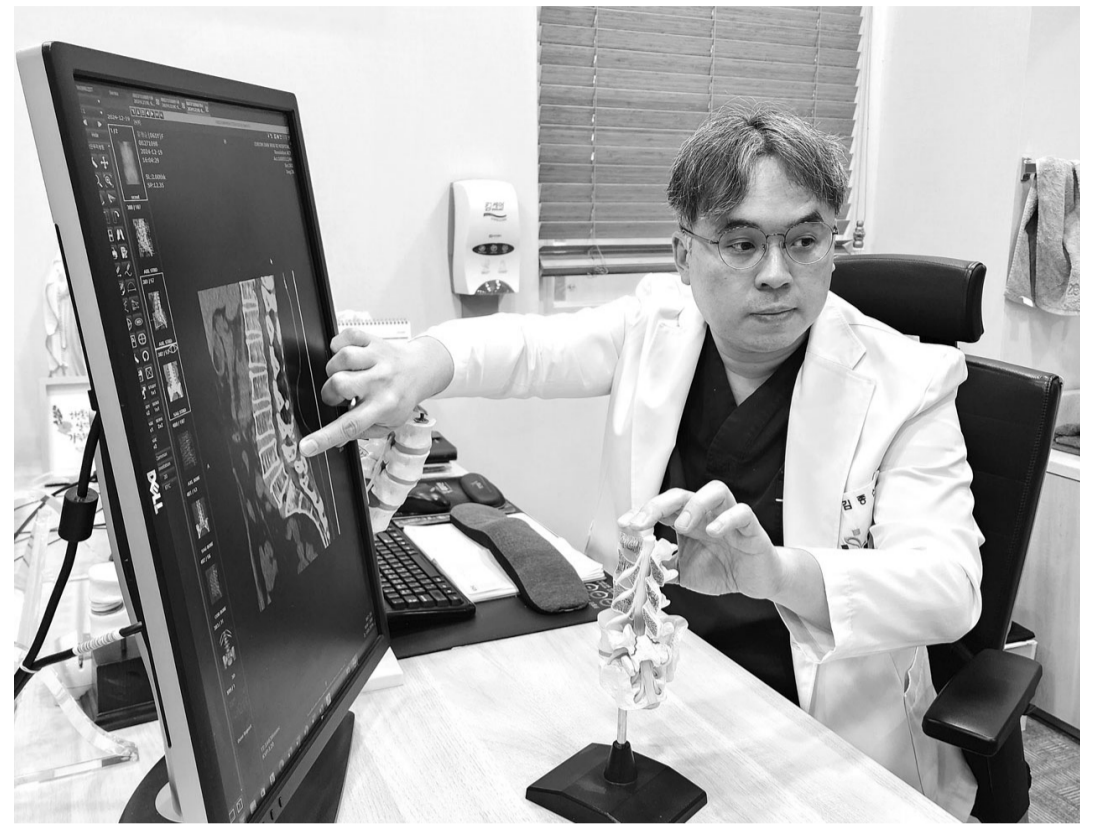
수술을 결정하기 전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족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식사 잘하세요?" "상처는 잘 아무는 편인가요?" "잠은 잘 주무세요?" "목 소리가 쟁쟁하세요?" "이 네 가지가 불만족스러우면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을 한 번 더 고려해볼 것을 장려한다.

노인 수술 시 문제 되는 첫 번째 부분은 식사를 잘못하시는 분들이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이 염증이 잘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 환자는 수술 후에 전반적인 몸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수술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폐에 물이 찬다든지, 콩팥에 무리가 간다든지 하면서 폐렴이나 신부전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체중인 경우, 정상 또는 과체중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다.

또한 고령에서 수술 시 문제점은 지혈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령에서는 지혈 능력, 혈관의 수축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수술 시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술 중, 수술 후 빈혈 발생으로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 빈혈이 면역력 약화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고령에서 수술 후 염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두 번째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가 있다. 고령에서는 수술 전, 후에 섬망이 잘 발생한다. 이른 밤에 잠을 못들게 되면, 밤 12시 정도에 고령에서는 섬망이 발생된다. 섬망을 한번 지켜본 보호자는 깜짝 놀라게 된다. 섬망이 시작되면 환자는 간병하는 가족을 몰라보며, 팔에 있는 주사기를 빼버리고, 심리적으로 흥분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꾸 일어나서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대다수는 일주일 이내 증상이 호전된다. 섬망이 발생된 환자가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 번째로 목소리가 쟁쟁해야 하는 이유이다. 환자는 나오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목소리가 쟁쟁하고 정신이 맑아야 수술 후 재활 결과가 좋다. 고령의 환자는 가족들이 잘 모르고 있던 치매 증상이 수술 후에 나타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초기 치매는 집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낯선 병원 환경에서는 정신적 혼란을 느끼며, 치매 증상을 보이는 고령 환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입원 후에 치매가 생겼다고 항의하는 가족도 있다. 새로운 환경이 정신적 스트레스이고, 수술 또한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보호자는 고령의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는



첨단우리병원 김종선 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것은 조심해야 한다. ◇수술 후 기대치를 정한 후 수술 여부 결정=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심한 통증에 대해서 환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술 후 회복이 좋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고령 환자의 평소 생활 및 치료 과정에 대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가족이 환자가 악화된 것에 대해 놀라고, 의학적인 이해도 또한 덜

어지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본인의 죄책감을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능동 보행이 중요하고,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다. 그러나 수술이 환자를 젊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가족이 생각하는 수술 후의 기대치를 의료진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의료진에게 수술 후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 듣고, 수술을 결정해 야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개원 119주년 네팔 까브레지역서 의료봉사

광주기독병원이 개원 119주년을 기념해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광주기독병원 의료봉사단원 32명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네팔 까브레 지역에서 11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환부터 감염성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봉사팀은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과, 치과 등 진료 뿐 아니라 초음파, X-ray, 재활치료, 처치, 수술, 투약 등 연인원 3600건의 진료와 검사를 시행했다.

해 도로가 아직 정비 되지 않는 곳이 있어 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나눠 주고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진료를 받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추위와 힘든 것이 다 보상된다" 고 말했다.

고영춘 광주기독병원선교회 회장은 "홍수로 인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대병원,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10회 연속...수혈 평가도 1등급

전남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10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3월까지 입원·수술·퇴원이 이뤄진 진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등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전남대병원은 종합점수 98.5점으로 수질종합병원 평균점수(97.6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개두술·대장수술·척추수술 등 13개 항목에 평가 기준점을 획득, 1596만 7700원의 가산금도 받았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수혈기이드라인에 따른 혈액사용 관리로 적정수혈을 유지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8월까지 6개월 동안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4개의 평가지와 4개의 모니터링 지표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은 또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했다.

주요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는 ▲수혈량 지표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에기항체선별 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환자 수혈률 ▲수혈관리 수행률 등이다. 정진 병원장은 "이번 평가는 전남대병원이 철저하게 환자 안전중심의 병원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대지/임야/전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타], [아파트].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타], [아파트].

본 공고는 법원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입니다.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2. 매각기일: 2025. 1. 6.(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5. 1. 13.(월) 16:00 4. 매각장소: 순천지원 제108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6. 매각대상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9. 특별매각조건